

2016. 04. 25. ~ 05. 01. 주간

82  
VOL

#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산물 동향 (관측정보)

· 2016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 및 출하동향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산 한우고기, 홍콩 이어 마카오까지 수출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교미교란트랩을 이용한 감꼭지나방 방제요령
- 시설무화과 유기재배 적정 결과지수 및 적심시기

## 정책동향

· 꾸지뽕나무 고소득 특화산업 연구 나선다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농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29일 마감
- 디자인박람회, 청소년 체험학습장으로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8mm)보다 많겠음

###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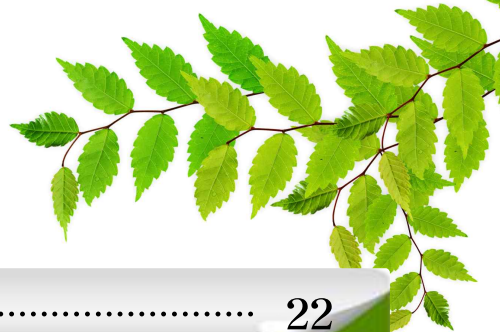
- ▶ 2016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 및 출하동향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2

- ▶ 전라남도, 전남도 육성 신품종 품종보호권 이전 협약체결!
- ▶ 광양시, 광양 매실청 관내 전 학교 급식시설 공급 확대
- ▶ 담양군, '대숲맑은 담양쌀' 생산 위한 조기 햅쌀단지 첫 모내기 실시 확대
- ▶ 고흥군, 전국 최다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8종 보유...매출·수출 기대
- ▶ 보성군, 풍년농사의 첫걸음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시작!
- ▶ 화순군, 청년 후계농업인 농기계 교육 실시
- ▶ 강진군, 아스파라거스 본격 출하
- ▶ 무안군, 조생양파 가격안정 협의회 개최
- ▶ 함평군, "함평산 친환경농산물 마음 놓고 드세요"
- ▶ 장성군, 터널재배농법으로 '고추농사 풍년' 예고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22

- ▶ 전남산 한우고기, 홍콩 이어 마카오까지 수출
- ▶ 수출용 쌀 생산 단지 활성화 방안 찾는다
- ▶ 우리 기술로 개발한 풀 사료 종자, 세계화 길 열어

##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5

- ▶ 교미교란트랩을 이용한 감꼭지나방 방제요령
- ▶ 남부지역 콩 경영규모별 고소득 작부체계
- ▶ 시설무화과 유기재배 적정 결과지수 및 적심시기
- ▶ 마늘·양파·강황·생강의 기능성이 보장된 천연향미오일 제조방법
- ▶ 쌀 생산비 절감기술[무논점파] 권역별 교육 특강
- ▶ 목이버섯 국내 최초 국산품종으로 승부한다
- ▶ 찰옥수수 재배 시, 풋거름작물을 사이짓기 하세요
- ▶ 바이오에탄올 생산효율 높이는 기술 개발...상용화 성큼

## ❁ 정책 동향 ..... 33

- ▶ 꾸지뽕나무 고소득 특화산업 연구 나선다
- ▶ 수박 꼭지 짧은 것으로 구매하세요
- ▶ 정부관리양곡 부정유통 단속 강화
- ▶ '16. 7. 1일부터 "농업기계 및 주요부품 가격표시제" 실시
- ▶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대상 확대로 스마트 팜 날개 단다!



▶ 러시아 소비자, 건강보조식품 관심 증대

▶ 미국서 소포장 및 간편 포장 식품 인기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4. 25.(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시장은 숏커버링 랠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세계 밀 재고량 전망은 여전히 약세 요인으로 남아있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금주 초반 가격상승으로 이익을 남겼으나 금일 투기적 거래인들의 차익실현거래와 미국의 봄 파종 진행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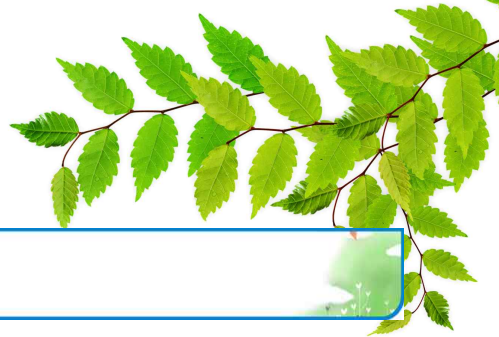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차익실현거래로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농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29일 마감

▶ 디자인박람회, 청소년 체험학습장으로

▶ 「2016 쌀 적정생산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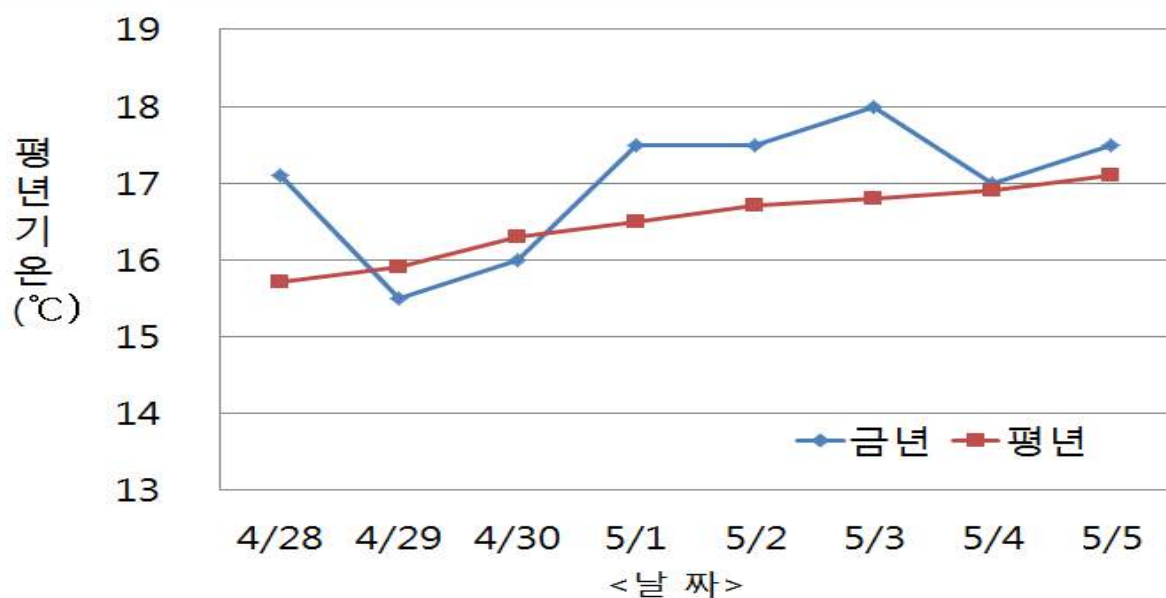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7.1	16.5	0.6	23.1	22.6	0.5	11.0	11.0	0.0	3.5
4. 28.(목)	15.5	15.7	-0.2	20.0	22.1	-2.1	11.0	10.0	1.0	2.9
4. 29.(금)	16.0	15.9	0.1	23.0	22.2	0.8	9.0	10.4	-1.4	2.7
4. 30.(토)	17.5	16.3	1.2	25.0	22.4	2.6	10.0	10.8	-0.8	3.2
5. 01.(일)	17.5	16.5	1.0	24.0	22.6	1.4	11.0	11.1	-0.1	3.5
5. 02.(월)	17.5	16.7	0.8	24.0	22.7	1.3	11.0	11.2	-0.2	3.1
5. 03.(화)	18.0	16.8	1.2	22.0	22.9	-0.9	14.0	11.3	2.7	3.4
5. 04.(수)	17.0	16.9	0.1	23.0	23.0	0.0	11.0	11.3	-0.3	4.4
5. 05.(목)	17.5	17.1	0.4	24.0	23.1	0.9	11.0	11.5	-0.5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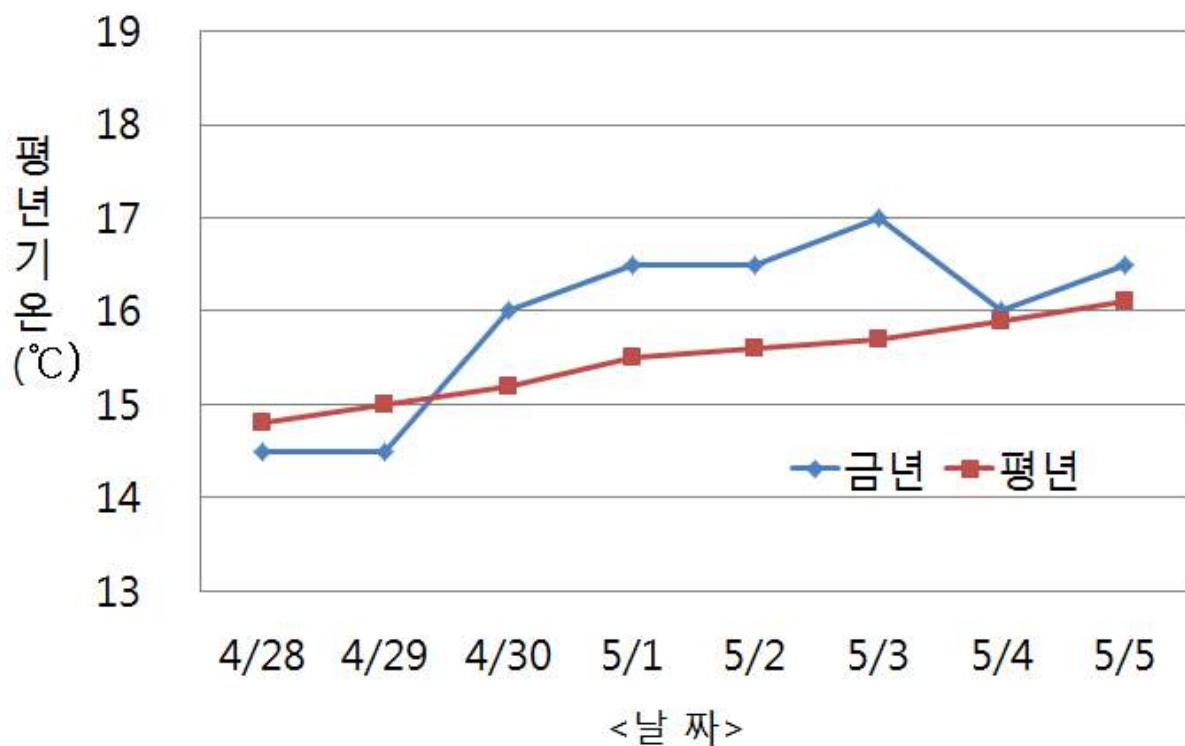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5.9	15.5	0.5	20.8	20.6	0.1	11.1	11.3	-0.1	2.8
4. 28.(목)	14.5	14.8	-0.3	18.0	20.1	-2.1	11.0	10.5	0.5	2.4
4. 29.(금)	14.5	15.0	-0.5	20.0	20.2	-0.2	9.0	10.8	-1.8	2.2
4. 30.(토)	16.0	15.2	0.8	22.0	20.4	1.6	10.0	11.1	-1.1	2.3
5. 01.(일)	16.5	15.5	1.0	21.0	20.7	0.3	12.0	11.3	0.7	2.6
5. 02.(월)	16.5	15.6	0.9	22.0	20.7	1.3	11.0	11.4	-0.4	2.4
5. 03.(화)	17.0	15.7	1.3	20.0	20.8	-0.8	14.0	11.5	2.5	2.5
5. 04.(수)	16.0	15.9	0.1	21.0	21.0	0.0	11.0	11.6	-0.6	3.6
5. 05.(목)	16.5	16.1	0.4	22.0	21.1	0.9	11.0	11.8	-0.8	4.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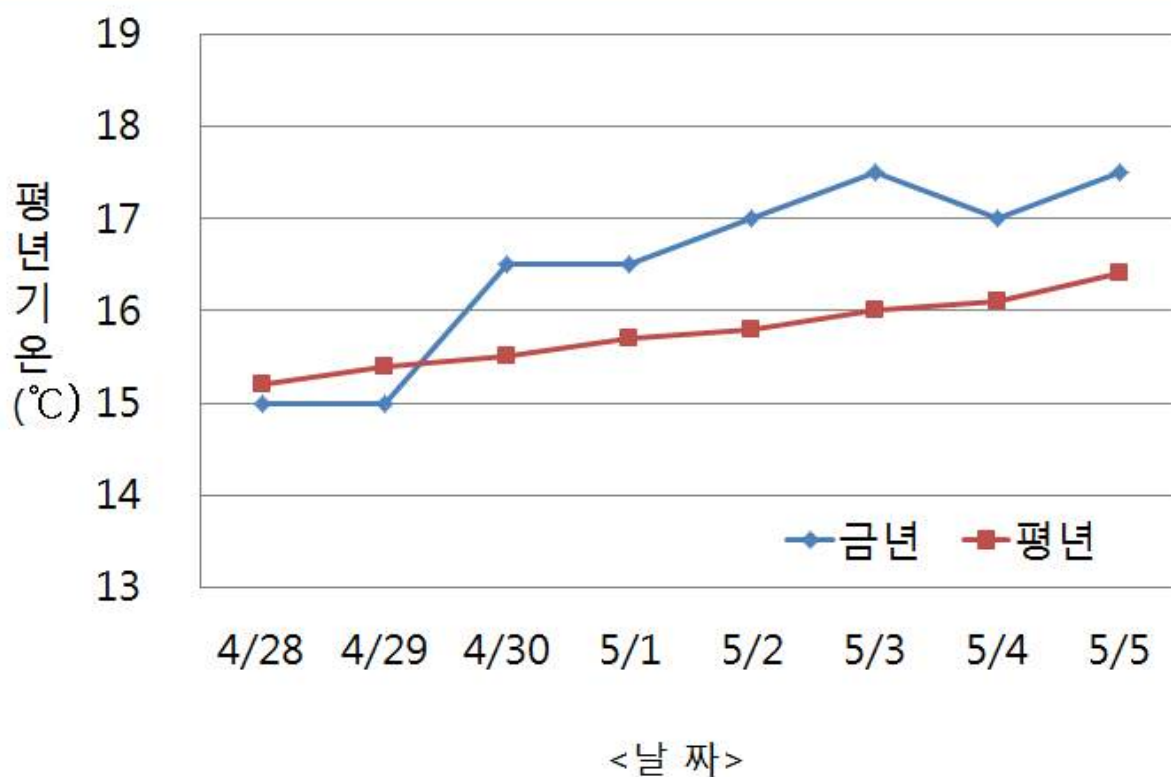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6.5	15.8	0.7	20.3	19.6	0.7	12.8	12.5	0.3	5.2
4. 28.(목)	15.0	15.2	-0.2	18.0	19.2	-1.2	12.0	11.8	0.2	4.6
4. 29.(금)	15.0	15.4	-0.4	19.0	19.2	-0.2	11.0	12.0	-1.0	4.4
4. 30.(토)	16.5	15.5	1.0	21.0	19.3	1.7	12.0	12.2	-0.2	4.6
5. 01.(일)	16.5	15.7	0.8	20.0	19.5	0.5	13.0	12.5	0.5	4.8
5. 02.(월)	17.0	15.8	1.2	21.0	19.7	1.3	13.0	12.6	0.4	4.1
5. 03.(화)	17.5	16.0	1.5	20.0	19.8	0.2	15.0	12.7	2.3	5.0
5. 04.(수)	17.0	16.1	0.9	21.0	19.9	1.1	13.0	12.8	0.2	6.5
5. 05.(목)	17.5	16.4	1.1	22.0	20.1	1.9	13.0	13.1	-0.1	7.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2016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 및 출하동향

#### 가. 가격동향

- 4월 양파 가격 평균보다 높으나, 순별 가격은 하락세
  - 양파 4월 평균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평년(692원)보다 크게 높은 1,430원/kg 순별 가격은 상순 1,640원에서 하순 970원으로 하락세를 보였음. 일 평균 반입량은 상순 695톤에서 하순 891톤으로 증가하였음.
  - 2015년산 저장양파 출하가 종료되는 시점은 4월 상순에 2016년산 조생종 양파의 구비대 부진, 우천 등으로 출하가 원활치 못하여 상순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음.
  - 4월 중순 이후 조생종 양파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음. 특히, 하순에 상순에 출하가 지연되었던 조생종 양파의 출하가 집중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졌음.

#### 나. 조생종 양파 생산 및 출하동향

- 2016년산 조생종 양파 생산량 평년보다 증가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4. 20.), 2016년산 조생종 단수는 평년보다 4% 감소한 5,954kg/10a
  - 겨울철 따뜻한 기온, 잦은 비로 조기 정식 및 웃자람 심한 포전의 경우, 분구 발생이 평년(10%)보다 많아 상품성이 저하되었으며, 제주지역은 노균병 발생도 증가하였음.





- 2016년산 조생종 생산량은 단수가 감소하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평년보다 14% 증가한 14만 9천톤

< 2016년산 조생종 생산량 추정 >

단위 : ha, kg/10a, 천톤, %

연 산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6		2,496	5,954	148.6
2015		2,013	6,274	126.3
평 년		2,096	6,213	130.2
증감률	전년 대비	24.0	-5.1	17.6
	평년 대비	19.1	-4.2	14.1

□ 조생종 양파 출하조절 통해 현 수준의 가격 유지 및 5월 가격 안정화 필요

- 제주·전남 고흥지역의 출하는 4월 상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  
되어 4월 24일 기준 수확률은 약 70%임. 무안 노지 조생종 양파의  
수확도 4월 15일경부터 시작되었음.
- 제주·전남 고흥 지역의 출하가 늦어진데다, 4월 하순 전남 무안 등  
조생종 양파의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집중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율적 출하조절이 필요함.
- 제주·전남 고흥지역의 수확이 5월 상순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되며,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되지 않은 출하지역의 경우 출하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 시킬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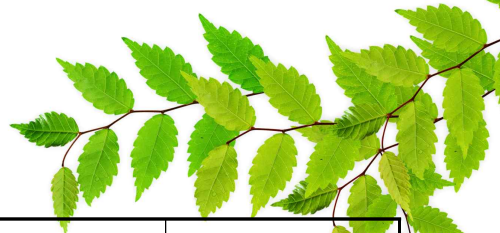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4. 2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4/25)	1주일전 (04/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0,800	41,933	↓ 11.3	↓ 13.7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6,000	185,167	↑ 10.3	↓ 19.0
	고구마(밤)	10kg	30,600	29,200	26,800	29,000	27,133	↑ 5.5	↑ 12.8
	감자(수미)	20kg	28,800	31,400	30,840	47,100	27,973	↓ 38.9	↑ 3.0
채소류	배추(월동)	1kg	1,580	1,520	1,256	520	784	↑ 203.8	↑ 101.5
	양배추	10kg	11,600	10,300	7,600	5,675	5,632	↑ 104.4	↑ 106.0
	오이(다다기계통)	10kg	18,667	21,667	28,800	21,556	21,534	↓ 13.4	↓ 13.3
	애호박	8kg	12,200	14,200	22,760	16,250	14,760	↓ 24.9	↓ 17.3
	토마토	10kg	27,400	31,000	36,880	32,650	31,910	↓ 16.1	↓ 14.1
	당근	20kg	27,200	27,800	24,800	22,600	29,013	↑ 20.4	↓ 6.2
	건고추(화건)	60kg	726,000	726,000	760,800	820,000	848,133	↓ 11.5	↓ 14.4
	풋고추	10kg	37,400	42,200	46,400	59,350	46,853	↓ 37.0	↓ 20.2
	마늘(깐마늘)	20kg	169,000	169,000	163,000	107,200	121,693	↑ 57.6	↑ 38.9
	양파	20kg	-	31,800	32,000	10,100	11,700	-	-
	대파	1kg	2,340	2,430	2,460	1,510	1,388	↑ 55.0	↑ 68.6
	파프리카	5kg	24,600	28,800	25,440	24,650	25,947	↓ 0.2	↓ 5.2
	멜론	8kg	26,200	27,000	28,960	28,350	41,966	↓ 7.6	↓ 37.6
	방울토마토	5kg	21,800	24,800	26,840	22,250	22,510	↓ 2.0	↓ 3.2
	수박	1개	15,800	17,000	18,560	15,700	15,584	↑ 0.6	↑ 1.4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7,000	37,000	37,000	42,533	51,467	↓ 13.0	↓ 28.1
	배(신고)	15kg	44,000	44,000	44,000	40,800	44,791	↑ 7.8	↓ 1.8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4/25)	1주일전 (04/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32,000	570,378	↓ 0.6	↓ 7.3
	느타리버섯	2kg	13,000	13,600	11,720	12,500	11,853	↑ 4.0	↑ 9.7
	새송이버섯	2kg	8,200	8,200	8,680	8,650	8,550	↓ 5.2	↓ 4.1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65	7,718	8,081	6,486	5,898	↑ 24.3	↑ 36.7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32	1,818	1,898	1,959	1,845	↓ 1.4	↑ 4.7
	닭고기	1kg	5,355	5,293	5,627	5,466	5,929	↓ 2.0	↓ 9.7
	계란(특란)	30개	5,486	5,356	5,366	5,939	5,860	↓ 7.6	↓ 6.4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78	- 0.0	↑ 7.2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4. 25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955 천원	5,839 천원	4,062 천원	↑ 2.0	↑ 46.6
	거세	7,126 "	7,412 "	5,528 "	↓ 3.9	↑ 28.9
송아지 (6~7월)	암	3,060 "	2,847 "	1,579 "	↑ 7.5	↑ 93.8
	수	3,747 "	3,415 "	2,261 "	↑ 9.7	↑ 65.7
육우(600Kg)		3,487 "	3,688 "	3,562 "	↓ 5.5	↓ 2.1
젖소수송아지(7일령)		294 "	253 "	136 "	↑ 16.2	↑ 116.2
돼지(110kg)		378 "	372 "	396 "	↑ 1.6	↓ 4.5
육계(원/kg)		1,247 원	1,373 원	1,810 원	↓ 9.2	↓ 31.1
계란(원/특란10개)		988 "	917 "	1,362 "	↑ 7.7	↓ 27.5
오리(원/kg)		1,667 "	1,667 "	2,500 "	-	↓ 33.3

※ '14년 경정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전남도 육성 신품종 품종보호권 이전 협약체결!

- 도내 종묘업체에 초콜릿색 토마토 ‘헤이-킹’ 등 3품종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자체 육성한 신품종 중 검정토마토 1, 장미 2품종 등 3품종에 대하여 전남 도내 종묘업체인 가나종묘(대표 안재균)와 국제화훼종묘(대표 김미순)에 품종보호권 이전 협약 체결을 가졌다.
- 이번에 산업체에 이전된 검정토마토 신품종 ‘헤이-킹’의 과실은 검붉은색(초콜릿색)으로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라이코펜 함량과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은 기능성 품종이다. 장미 신품종 ‘웨딩마치’는 연분홍백색으로 향기가 많아 부케용 장미로 유망하고, ‘아로마온’ 품종은 진분홍백색으로 가시가 적고 향기가 강한 절화용 품종이다.
- 지금까지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전남 도내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멜론·마늘·풋고추 등을 비롯하여 11작목 57품종을 육성하여 도내 종묘업체에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이전하였으며, 최근 도정 목표인 생산비 비용 절감과 고품질의 우수품종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시대변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비자 수요 중심으로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우리 도 육성 품종 확대 보급과 안정 생산함으로써 종자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농가소득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광양시, 광양 매실청 관내 전 학교 급식시설 공급 확대

- 여름철 식중독 예방, 학업에 지친 학생들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 -

- 광양시에서는 광양 매실청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 급식시설에 무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시는 올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오는 5~10월까지 주 2회 '매실 음용의 날'로 정하고, 관내 병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77개교 2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18,000리터를 공급한다.
- 시가 지난 해 연말 매실청 공급사업 평가를 위해 학생 4,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실차 시음 후 갈증 해소 46, 소화가 잘됨 33, 피로 회복 4.4% 순으로 응답했다.
- 인스턴트 식품에 노출된 학생들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다수가 매실차를 선호하며 공급횟수와 양을 늘려주기를 희망한 결과를 낳았다.
- 특히 매실청을 공급한 날에는 단 한건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치 않아 매실의 효능이 확인되기도 했다.
- 시는 이에 따라 여름철 탄산음료를 대체하여 새로운 건강음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을 겨냥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김재복 학교급식팀장은 학생들의 매실차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감안 수도권 지역 학교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잠재적인 소비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통해 광양매실의 소비가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 ‘대숲맑은 담양쌀’ 생산 위한 조기 햅쌀단지 첫 모내기 실시 확대

- 담양군의 ‘대숲맑은 담양쌀’이 5년 연속 전라남도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돼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올해 첫 모내기 실시로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봉산면 삼지리, 용면 쌍태리 일원 2.7ha의 논에 전남1호 품종인 조생종 벼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74ha의 조기 햅쌀단지에 모내기를 실시한다.
- 조기햅쌀단지에서 재배된 햅쌀은 8월말에서 9월초에 수확해 금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전량 산물벼로 수매한 후 소포장 단위 가공을 거쳐 롯데상사의 유통망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군은 작년에만 220톤의 햅쌀 생산으로 4억 6천만여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 한편, 군은 조기햅쌀을 재배할 경우 일반 품종 수확 이전에 수확이 마무리돼 농가의 노동력 분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 경감 등의 이점으로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해 지속적으로 조기햅쌀단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담양군





## ■ 전국 최다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8종 보유...매출·수출 기대

- 전남 고흥군이 전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청정 고흥산 먹거리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잇따라 완료하여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1번지의 자리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 20일 군에 따르면, 이달 1일 고흥산 굴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해 전국 최다인 총 8종의 지리적 표시를 보유하게 되었다.
- 군은 이로써 품질 보증 면에서 타 지자체보다 한 발 더 앞서나가며,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농업 개방화 시대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 군은 지금까지 고흥유자(제14호)·고흥한우(제83호)·고흥석류(제94호)·고흥마늘(제99호) 농산물 4개 품목과 고흥미역(제14호)·고흥다시마(제15호)·고흥김(제21호)·고흥굴(제22호) 수산물 4개 품목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
- 이를 통해 각 품목의 특성과 품질·지식재산권을 인정받으며, 대내외적으로 고흥유자·고흥한우·고흥석류 등의 상품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 군은 이를 기반으로 우수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홍보 온라인 프로모션 및 홈쇼핑 방송 출연 지원 등 고흥 지리적 표시 등록 농수산물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흥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인증품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 ■ 보성군, 풍년농사의 첫걸음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시작!

- 종자소독 및 적량파종 현장기술지원 -

-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초기 발생 병해충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벼 종자소독 및 적량파종 현장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 지난 20일 보성읍 봉산리 방축마을에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사업 농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종자소독 및 적량파종 연시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쌀 생산에 시동을 걸었다.
- 이번 연시회는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사업 설명 및 추진요령, 고품질 쌀 재배기술 교육을 병행했다.
- 또한 키다리병, 벼 잎선충, 도열병 등 벼씨를 통해 전염되는 병해충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벼농사의 첫 단계인 소금물가리기 및 벼씨소독 방법을 연시하고, 못자리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벼 육묘용 상토 사용법, 벼씨 적량 파종 등을 교육하여 최고 품질의 보성쌀 생산에 힘썼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벼씨 친환경 소독방법은 발아기를 이용하여 60℃ 물에 10분간(65℃에서 7분) 소독 후 찬물에 30분간 담갔다가 꺼내어 22% 석회유황 50배액에 30℃에서 24시간 처리 후 물로 행구는 방법으로써 거의 완벽하게 키다리병을 사전 방제할 수 있으며, 종자소독만 제대로 정밀하게 실천하면 본답중기까지의 각종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약제종자소독을 할 때는 약제희석 농도와 온도, 소독 시간을 준수해야 약해를 받지 않고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약제 저항성 방지를 위해서는 2년마다 종자소독약을 바꾸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보성군농업기술센터



## ■ 화순군, 청년 후계농업인 농기계 교육 실시

- 영농4-H 회원 35명 대상으로 농기계 정비 및 현장 실습교육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기계 과제 교육을 지난 20일 실시했다.
- 이번에 실시한 과제 교육은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및 차세대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관(정현석 지도사)으로 부터 예취기 및 트랙터 경정비 방법, 논두렁 조성기 사용 방법, 농기계 이용 현장 실습교육 순으로 추진되었다.
- 특히 영농4-H회에서 운영하는 과제 학습포에서 실시된 현장 실습 교육은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회원 모두가 직접 농기계를 이용하여 실습 할 수 있는 현장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 영농4-H회 김호영 회장은 ‘이번 농기계 과제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자체 정비능력을 키우고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교육 과정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기계 정비 및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기계 이용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소득 향상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였다’며 ‘앞으로 화순의 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현장 기술교육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화순군

## ■ 강진군, 아스파라거스 본격 출하

- 고품질 연구와 친환경 인증으로 재도약 준비 -

- 전남 강진군에서 고급 채소인 아스파라거스의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다.
-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아스파라거스는 올해까지 11농가 4.5ha 재배중인데 전남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 아스파라거스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어 피로회복이나 숙취해소 뿐만 아니라 체내에 축적되는 옥살산을 쉽게 배출함에 따라 통풍예방에도 도움을 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또한 최근 서구화된 식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배도 까다롭지 않고 고소득 품목으로 농가들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번 심으면 10년까지 수확이 가능해 재배농민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품목이다.
- 지난 12일에는 연구회원들이 국내유일의 아스파라거스 연구대학인 원광대학교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외국산 아스파라거스 품종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견학과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 도암면 박민오(50)씨는 “아스파라거스는 한번 정식하면 다년간 수확하는 작물로 좋은 품종을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군 관계자는 “타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빠르게 수확되고 있지만 앞으로 강진 전체에 친환경재배기술을 정착시켜 품질 향상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강진군





## ■ 무안군, 조생양파 가격안정 협의회 개최

- 양파 거래 동향에 따른 수급 안정 사전 협의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군의 주 소득 작물인 조생양파의 거래 동향에 따른 가격 하락세를 인지하고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0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박준수 부군수, 농협 관계자, 읍면 양파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무안군 양파품목협의회를 개최했다.
- 4월 들어 양파 가격은 한때 kg당 1,813원(5일/上품, 가락시장) 선까지 오르다 20일 1,085원/kg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가격하락 추세는 제주산과 고흥산 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인 5월 상순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 이는 고흥과 제주양파 재배면적이 각각 13, 28%, 전국 재배면적은 24% 증가한 2,496ha로 집계되었고 출하시기 또한 중첩되어 조생양파 생산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 정도식 청계농협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에 있는 양파 가격 위기 단계별 가격이 농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심각 단계 5월 기준인 331원/kg은 실제 농가 최저 생산비 수준인 최소 550원/kg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며 단계별 단가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박준수 부군수는 “소비자 물가상승의 주범이 양파 가격폭등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이제는 양파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변했다”며 “조생양파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와 농협, 생산자,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한편, 무안군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안건들은 정부에 건의하고 양파 가격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무안군

## ■ 함평군, “함평산 친환경농산물 마음 놓고 드세요”

- 잔류농약 320가지 성분 분석 가능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개원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18일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개원했다.
- 국비 5억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한 이 분석실은 안전성 검사 지정 기관의 시설 규모를 갖췄다.
- 액·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등 6종의 분석 장비를 이용해 잔류농약 320가지를 분석할 수 있다.
-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함평 로컬푸드 생산 농산물을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 또 출하시기 조절,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등 지속적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관리한다.
- 이와 함께 친환경재배단지의 토양도 검사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 임광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안전성 검사는 기존의 토양종합검정, 유용미생물 공급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 출처 : 함평군



## ■ 장성군, 터널재배농법으로 ‘고추농사 풍년’ 예고

- 이상기후 대비 서리 및 냉해 피해 예방...수확량 최고 3배 증가 예상 -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서리,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고추농사에 부직포를 활용한 터널재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부직포 터널재배 방식은 고추를 정식한 후 그 위에 터널 형태로 부직포를 씌우는 방식으로 일반 재배방식보다 수확량을 최고 3배 정도까지 늘릴 수 있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재배 기술이다.
- 또한 햇빛투과율이 좋아 보온효과가 뛰어나며, 일반 비닐 터널 재배와 달리 환기구멍을 뚫지 않아 부직포를 벗길 때까지 해충 방제가 필요 없어 노동력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
- 이밖에도 일반 고추보다 15~20일 정도 앞당겨 조기에 정식해 초기 생육이 빨라져 장마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고추 수확할 수는 장점이 있다. 우박과 냉해, 저온 피해 등의 예방은 물론 부직포를 2~3년까지 재사용이 가능해 생산비도 절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 장성군은 올해 14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확완료 후 생산량 비교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력화 할 수 있는 고추 부직포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해 고추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장성군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전남산 한우고기, 홍콩 이어 마카오까지 수출

- 농협나주공판장, 수출작업장으로 등록 확정 -

- 구제역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해 도축 가공한 한우고기가 홍콩에 이어 마카오까지 수출될 전망이다.
-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우고기 등 소고기 제품의 마카오 수출을 위한 한국 마카오 정부 간 검역위생 협상이 지난 15일 완료됐다.
- 이런 가운데 그동안 마카오 정부에 수출작업장으로 등록을 추진해온 전남 나주 소재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도축장과 녹색한우 가공장이 수출작업장으로 등록 확정돼 수출이 가능해졌다.
- 한우고기 마카오 수출작업장 등록을 받은 곳은 전남 2곳을 포함해 서울 1·경남 1·제주 2곳, 총 6곳이다.
- 마카오는 구제역이 1년 동안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소고기 수입을 수출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전남은 지금까지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어서 한우고기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전남산 한우고기가 계속 해외로 수출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브랜드 경영체별 사료 통일 등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양관리에 나서겠다”며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카오 소고기 수출작업장으로 등록된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도축장과 녹색한우 가공장은 홍콩 수출작업장으로도 등록됐으며,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자체 가공장 1곳도 검역 시행장 지정을 완료하고 홍콩 등 수출작업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 수출용 쌀 생산 단지 활성화 방안 찾는다

- 농촌진흥청, 전북 부안 ‘수출용 쌀 생산 단지 활성화 지원 연찬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4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2일간 정부3.0에 맞춰 쌀 수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시장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한 연찬회를 전북 부안에서 개최한다.
- 첫째 날은 △수출용 쌀 생산 단지 시범사업 추진(농촌진흥청 박홍재 지도관) △중국 쌀 시장 실태 및 대응방향(농촌진흥청 이병서 연구관) △쌀 수출 활성화 지원정책(농림축산식품부 조은지 사무관) △비용 절감을 위한 쌀 재배기술(농촌진흥청 한희석 박사)에 대한 발표가 있다.
- 또한, 보령·군산·하동·당진·상주 등 수출용 쌀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사례와 평택·곡성·진도·영주·안동 등 신규 생산 단지의 운영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 둘째 날에는 서천군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지난해 중국 등 아시아에 쌀을 수출한 사례를 통해 앞으로 계획에 대해 토론한다.
-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쌀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수출용 쌀 생산 단지를 평택·당진·보령 등 전국 10개소에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 규모는 단지 당 30ha로 2018년까지 3년간 생산비 절감 농자재, 가공시설, 브랜드 개발 등 쌀 수출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유승오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연찬회에서 수출용 쌀 생산 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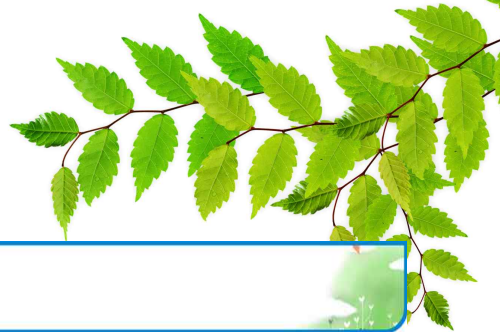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 ■ 우리 기술로 개발한 풀 사료 종자, 세계화 길 열어

- 국산 IRG 해외적응성 재배시험 마치고 미국과 로열티 계약 맺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그린팜’과 ‘코윈어리’ 품종의 해외적응성 시험을 마치고 미국과 사용료(로열티) 계약을 맺었다.
- 로열티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이고, 계약물량은 835톤이며, 앞으로 미국 내 재배 면적은 2,300~10,500ha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받게 될 로열티는 생산된 종자 10kg 당 216원으로, 2021년까지 1만 6,000달러(1,84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단,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풀 사료 종자를 미국 외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
-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그린팜(2010)’은 이모작용 극조생 품종으로 수확기가 이전 조생종에 비해 10여일 빨라 수확한 뒤 모내기까지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 2013년 미국 특허상표청(US PTO)에 국내 최초로 품종을 해외출원했으며, 2013년 국제보증종자 인증협회(AOSCA)에 품종등록을 마쳤다.
- 이번 계약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축산분야 수출지원단’ 사업의 결과로, 앞으로 세계 수준의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품종 육성과 수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국산 종자의 자급률 높이는 것은 물론, 종자 수출 확대로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교미교란트랩을 이용한 감꼭지나방 방제요령

####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유기재배 단감과원의 감꼭지나방 방제를 위한 교미교란트랩 설치

- 트랩성분 : (E,Z)-4,6-Hexadecadienyl acetate (C<sub>18</sub>H<sub>32</sub>O<sub>2</sub>) 58.0%+  
(E,Z)-4,6-Hexadecadienal 5.8%

- 설치시기 : 5월 상순(1회 설치로 수확시까지 효과지속)

※ 감꼭지나방 성충 발생시기 : 6월 상중순, 8월 상중순

- 설치방법 : 결속형 트랩을 1.5m 높이에 5×5m 간격으로 60개/10a 설치

- 설치비용 : 60개/10a × 1,200원 = 7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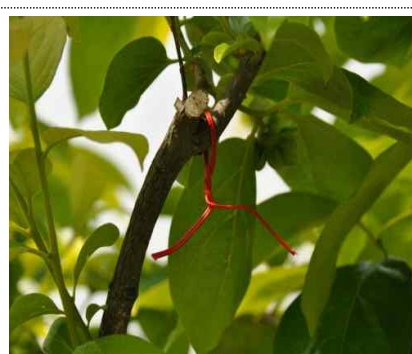
- 주의사항 : 넓은 면적을 동시에 설치했을 때 방제효과 높아짐



감꼭지나방 유충



감꼭지나방 성충



결속형 교미교란트랩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농자재 살포회수 경감 6회, 노동력 절감 및 착과율 31% 향상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 ■ 남부지역 콩 경영규모별 고소득 작부체계

###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남부지역 콩 2모작 경영성과 우선순위 (단위 : 천원/10a, 순위)

구 분		콩+마늘	콩+양파	콩+옥수수	콩+감자	콩+밀
조수입	금액	3,943	3,054	2,743	3,127	1,422
	순위	1	3	4	2	5
경영비	금액	2,199	1,429	1,056	1,607	867
	순위	1	3	4	2	5
소 득	금액	1,744	1,625	1,686	1,520	555
	순위	1	3	2	4	5

○ 남부지역 콩 경영규모 및 작부체계별 경영성과 (단위 : 천원/10a, 순위)

구 분		콩+마늘	콩+양파	콩+옥수수	콩+감자	콩+밀
소면적 (0.1ha 미만)	조 수 입	4,605	3,024	3,325	3,556	-
	소 득	2,372	1,559	2,201	2,321	-
	소득순위	1	4	3	2	-
중면적 (0.1~1ha)	조 수 입	3,998	3,530	2,304	3,092	2,012
	소 득	2,051	2,045	1,324	1,483	1,190
	소득순위	1	2	4	3	5
대면적 (1ha 이상)	조 수 입	3,430	2,401	2,171	3,003	1,127
	소 득	1,049	1,124	1,680	1,381	304
	소득순위	4	3	1	2	5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콩+양파, 콩+마늘 위주의 집중적 재배에 따른 연작장해, 토양양분 불균형 등의 문제점 개선뿐만 아니라 콩 경영규모별 고소득 작부체계 도입 가능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최진경, 김용순, 박홍규



## ■ 시설무화과 유기재배 적정 결과지수 및 적심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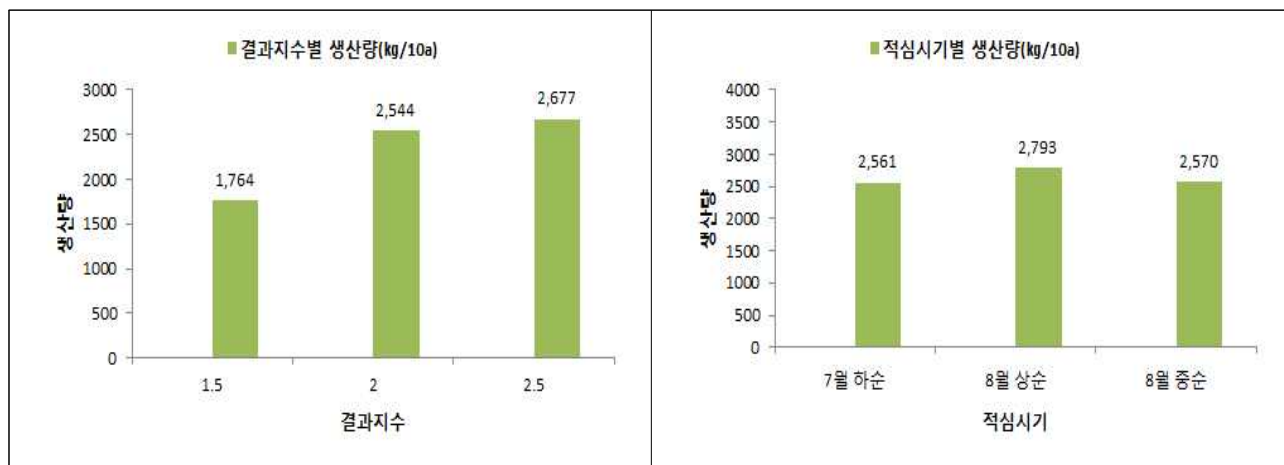
### □ 개발기술 내용(2015년 연구결과)

#### ○ 적정 결과지 수 확보방법

- 10a(1,000m<sup>2</sup>)당 2,000개의 신초만 남겨 결과지로 활용→1,500, 2,500개를 남기는 것보다 18% 증수하거나 수량이 같음

#### ○ 적심시기

- 8월 상순에 적심 → 7월 하순 8월 중순에 적심하는 것보다 수량이 9, 8% 증수함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10a당 결과지 2,000개를 남길 경우 수량이 2,544kg을 생산하여 1,500, 2,500개를 남기는 것보다 18% 증수하거나 수량이 같음
- 8월 상순 적심하는 것이 7월 하순, 8월 중순에 적심하는 것보다 수량이 9, 8% 증수함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변만호

## ■ 마늘·양파·강황·생강의 기능성이 보강된 천연향미오일 제조방법

### □ 기술개요

- 신선한 압착올리브오일을 베이스로 하여 마늘·양파·생강, 함유한 생리활성 물질인 지용성 성분을 냉침 추출시켜 풍미와 강황 등에 기능성이 보강된 조미용 향미식용유 개발 및 그의 제조방법
- 마늘·양파·생강·강황 등에 함유한 생리활성 물질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추출방법을 제조공정화하여 향미유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조방법 제공

향미유 종 류	마늘·양파	생강	강 황
기능성 강화성분	설파이드류 (혈액유통)	진지베론 (항염증, 면역성증강)	투메론 (항치매_
향미특성	마늘·양파향 식육촉진	신선한 생강향	구수한 바닐린향



### □ 타 기술과의 차별성

- 향미유는 대부분 수입의존이며 일부는 제품에는 화학적인 향료를 첨가하여 향은 있으나 기능성이 없고 산패가 쉬운 단점이 있음
- 본 발명품은 기능성 및 풍미 우수, 저장성이 좋은 천연 향미유임

※ 관련 사업(기업) 응용분야: 유지, 식품가공, 제약회사, 향료 및 소스생산업체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조경숙





## ■ 쌀 생산비 절감기술[무논점파] 권역별 교육 특강

- 저비용 고소득 농업 실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저비용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해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 무논점파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무논점파 재배기술 확산을 위해 4월 15, 21일 전라남도 쌀산학연합협력단과 함께 상대적으로 기술 수용도가 낮은 북·동부 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벼 무논점파기술은 씨레질 후 물이 없는 상태의 논에 골을 파면서 싹틔운 볍씨를 5~7알씩 모내기과 같이 일정 간격으로 파종하며 1회 작업 시 8~10줄이 파종되는 동시에 비료도 함께 주는 기술이다.
- 이 기술은 못자리 설치 등 벼 육묘과정이 생략되는 못자리 없는 벼 재배법으로 관행 모내기과 비교 노동력이 약 35%(63.1시간/1ha → 무논점파 40.8시간)가 절감되는 기술이다.
- 또한, 기존의 직파기술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입모 불균일과 잡초발생, 벼 쓰러짐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된 기술이며 수량성이 기계모내기과 비슷한 게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쌀 값 하락 등 어려운 쌀 산업 여건에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필수이므로, 무논점파 재배기술은 이를 위한 선진적 기술이기에 더욱 확산·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목이버섯 국내 최초 국산품종으로 승부한다

- 전남농업기술원 육성 목이버섯 3개 품종 우리지역 종균업체에 이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자체 육성한 목이류 신품종 3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민간업체에 이전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목이버섯 국산화를 위한 품종육성과 톱밥붕지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로 흑목이 ‘용아’, 털목이 ‘품작’과 ‘건이’ 목이버섯 3개 품종을 우리지역 종균업체인 삼광 버섯영농조합에 유상 이전하게 되었다.
- ‘용아’는 배양기간이 짧고 발생이 빠르며 ‘품작’은 항당뇨 효과가 우수하여 가공용으로 적합하고, ‘건이’는 갓색이 연갈색으로 기호성이 좋고 병해충에 강한 특성이 있다.
- 목이버섯은 베타글루칸, 총폴리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몸의 면역력 증강은 물론 항산화, 항암, 항비만 효과 등 기능성과 영양이 우수한 식재료이며, 외국에서는 체내분진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탄광 등 작업자들이 즐겨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 그러나 국내 유통 목이버섯의 70% 이상이 수입산으로 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국산 목이 생산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육성품종의 민간이전은 국내 최초 목이 품종의 농가보급으로 국내산 목이버섯 생산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식량작물연구소 김길자 연구사는 목이버섯 국산화를 위한 거점 농가 육성의 일환으로 4개소에 보급예정이며 배양이 완료되는 4월 하순 농가입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품종의 통상 실시에 그치지 않고 사후 기술지도 및 대량생산 산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찰옥수수 재배 시, 풋거름작물을 사이짓기 하세요

- 풋거름작물로 양분 공급하고 잡초 발생 줄여... 친환경 재배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찰옥수수를 재배할 때 콩과 풋거름작물을 사이짓기한 다음 흙 속에 넣어주면 풋거름작물이 양분을 공급하고 잡초 발생을 줄여줘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옥수수는 비료성분을 많이 흡수하는 작물로 한 곳에서 이어짓기 하려면 땅심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퇴비가 필요하다.
- 이에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에서는 화학비료를 줄이면서도 찰옥수수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풋거름작물 사이짓기 재배법’을 개발했다.
- 풋거름작물 사이짓기 재배법은 찰옥수수를 심는 시기(4월 하순~5월 중순)에 콩·동부·헤어리베치 등 콩과식물을 함께 심으면 된다.
- 콩·동부는 찰옥수수를 파종한 골 사이에 15cm 간격으로 한 포기당 3~4알씩 심는다. 헤어리베치는 10a당 4kg 정도의 종자를 흩어 뿌리고 흙을 덮어준다.
- 옥수수와 함께 자란 풋거름작물은 찰옥수수를 수확한 다음 트랙터 등을 이용해 밭갈이를 하거나 로터리작업으로 흙 속에 묻는다.
- 사이짓기로 자란 헤어리베치를 질소비료로 환산하면 10a당 7.5, 대원콩은 5.8, 서원동부는 5.3kg 정도의 효과가 있다.
- 또한, 잡초 발생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대원콩을 사이짓기하면 83.3, 서원동부는 82.2, 헤어리베치는 51.4%의 잡초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허성기 재배환경과장은 “이 방법은 옥수수 재배농가에서 옥수수를 심을 때 콩과식물을 추가로 심어 기존 옥수수의 재식 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특히, 양분 공급과 잡초를 줄이는 효과가 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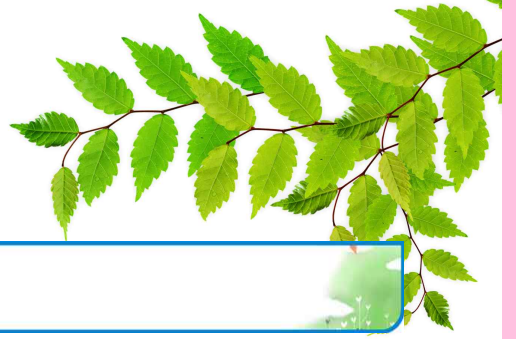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 ■ 바이오에탄올 생산효율 높이는 기술 개발...상용화 성큼

- 초본류 바이오매스 이용 바이오연료 발효당 생산 기술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초본류 바이오매스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효당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바이오에탄올 상용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 옥수수·사탕수수 등 1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 원료는 식량과의 경합 문제와 국제 곡물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이러한 원료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는 비 식량계 작물인 거대억새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시험공장(일일 억새 100kg 처리 16L 에탄올 생산)을 지난 2013년에 완공했다.
- 이 기술은 기존의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해 발효당을 생산할 때 보다 당 전환율은 10%(80→90%) 높이고, 효소 투입량은 1/3(20→7%) 수준으로 줄였다.
- 에탄올 생산을 위해 투입하는 효소당화 공정은 전체 공정비용의 10~15%를 차지하므로 효소 사용량 절감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올해 2월 특허등록(등록번호 제 10-1595004호) 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발효당 제조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이경보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바이오에탄올 시험공장에서는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검증하고 앞으로 국내 바이오연료 산업화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억새로부터 발효당을 추출한 다음 발생되는 부산물인 리그닌의 활용기술 개발 등 바이오에탄올 생산 경제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도 주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7. 정책 동향

### ◆ 꾸지뽕나무 고소득 특화산업 연구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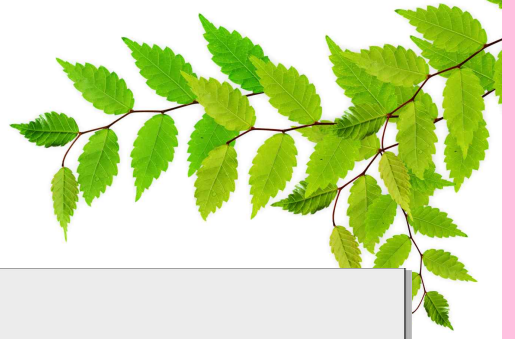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선정돼 24억원 확보 －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연구개발(R&D) 공모에 ‘꾸지뽕 고소득 특화산업’ 육성 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28억원의 연구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5년 전부터 지식경제부 지역특화연구 개발사업을 통한 꾸지뽕나무 선행 연구개발로 간 기능 보호 기능성을 밝혔다. 이를 신안 꾸지뽕영농조합법인에 기술 이전해 대기업인 보해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유통할 수 있도록 꾸지뽕 발효환, 향장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 하지만 원 생산물 및 1차적 단순가공 추출 제품으로는 소비자의 높아진 건강 상식과, 다소 비싸더라도 건강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 패턴을 고려할 때 산업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고차원적인 연구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해풍맞은 꾸지뽕나무를 활용한 고소득 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 사업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 이번에 선정된 것이다.



- 연구는 꾸지뽕나무의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다원적 가치증진을 위해 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조선대 약학대학, (주)생명의 나무, 전북대학병원, 남도제품유통사업자협동조합, 강산농원영농조합법인 등 산학연 공동으로 진행된다.
- 주요 연구 내용은 △식품소재 자원화, 건강기능식품개발, 인증형 시스템 구축 △토종자원 육성, 영농활동 지원 및 현장 실증모델 개발보급 △전문 인력 양성 및 의약산업과 연계융합 △개별 인증형 제품개발 및 기술 고도화 △신안 꾸지뽕 고부가가치화, 지역 임산업 활성화 등이다.
- 이 가운데 꾸지뽕나무를 활용한 대기오염 정화소재 개발, 꾸지뽕 열매의 대사증후군, 면역 개선 약리효능평가(인체시험), 인체 섭취 시 약물 간 상호작용 평가, 임산업 기초 생태계 지원,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대기업과 홈쇼핑 연계 임업소득 사업화 등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 꾸지뽕나무는 한반도 남부지방의 돌 많고 메마른 땅에서 무리지어 자란다. 생김새가 ‘굳이’ 뽕나무를 닮았다 하여 단단하다는 의미로, 다시 된 발음으로 변해 꾸지뽕나무가 됐다. 한자로는 자목(刺木)이라고 쓴다. 암세포를 더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통증을 가볍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 복수를 없애주는 작용이 있다. 또 말기 암환자의 저항력을 키워 스스로 병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며 여성의 자궁암, 자궁염, 냉증, 생리불순,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커 여성 질병의 성약(聖藥)으로 불린다.

\* 출처 : 전라남도



## ◆ 수박 꼭지 짧은 것으로 구매하세요

- 전남도, 적극 홍보...큰 꼭지 비해 품질 같고 수확유통 편리 -

-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수박 유통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을 적극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수박 꼭지의 모양은 종전 T자형에서 1자형으로 바뀌고, 꼭지의 길이도 10~15cm에서 3cm 이내로 짧아진다.
- 이번 수박 꼭지 유통개선은 농협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과실중도매인연합회, E-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농·소·상·정’ 상생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 전라남도는 본격적 수박 출하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도매시장에서는 꼭지 짧은 수박을 우선 경매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 단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농산물 표준 출하규격 추가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이 정착될 경우 연간 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출하 단계에서 꼭지 절단 작업이 수월해져 노동력이 1/3정도 감소해 연간 177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유통 소비단계에서는 꼭지 손상에 의한 감모폐기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간 45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 전남지역 연간 수박 생산량은 2014년 기준 2만 9천 310톤(재배면적 874ha) 규모로, 주로 나주·영암을 중심으로 매년 4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집중 출하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 정부관리양곡 부정유통 단속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중에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재고쌀을 '18년까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가공용 쌀 특별할인, 복지용 쌀 공급가격 인하, 주정용 및 사료용 쌀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에 처음 공급되는 사료용 쌀은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12년산, 현미 기준 99천톤)로써, 농식품부는 사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사료용 쌀이 처음 공급되는 만큼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이를 파쇄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5월에 일부 물량에 대한 시범공급을 거쳐 6월부터 전량을 파쇄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료용 쌀이 전량 파쇄미로 공급되는 6월 전까지는 유통단계별 실시간 체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 유통, 용도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사료용 쌀을 취급하는 모든 도정업체, 보관창고, 사료공장은 사료용 쌀 입출고시 물량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은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편 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공용 쌀 사용업체(861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등으로 13건을 적발하였다.
- 또한 농식품부는 4월 21일 지자체, 정부관리양곡 사용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양곡 부정유통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별 정부관리양곡 관리현황 및 부정유통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고 쌀을 감축하기 위해 당분간 정부관리양곡 특별공급을 통한 공급량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별 공급되는 재고 쌀이 지정된 용도 이외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16. 7. 1.부터 “농업기계 및 주요부품 가격표시제”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선택 비교할 수 있도록 ‘16. 7. 1.부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업기계 가격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판매업자는 농업기계를 판매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에게 구매를 유도하였다.
- 이는 농업기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농업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결국 농업기계 가격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

-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농업 기계와 트랙터 등 주요 6개 농업기계의 부품이 해당된다.
- 표시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농업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며,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된다.
-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가격표시가 기대되며, 농업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농업기계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6. 7. 1.부터 판매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랙터 등 6개 농업기계의 부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대상 확대로 스마트 팜 날개 단다!

- 농식품부,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발표 -

□ 농식품부는 첨단과학 영농을 선도하는 스마트 팜의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수립

○ 정책 추진 3년차를 맞아 성공 모델을 더욱 확산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스마트 팜 운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보급 목표('17) : [시설원예] 4,000ha(현대화된 시설의 40%), [축산] 730호(전업농의 10%)

- 보급 현황('15) : [시설원예] 1,258ha, [축산] 186개소

□ 스마트 팜 확산여건 조성, 교육 및 현장지원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R&D 확대 등 4대 분야 17개 세부 추진과제 확정

○ (확산 여건) 투자 다양화, 정책외연 확대, 기업 참여, 최적 SW개발

- (투자) 스마트 팜 전용 모태펀드 조성('16, 500억),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개설 등('16.6)

- (대상) 온실·축사 중심에서 노지(고추·인삼 등), 식물공장 등으로 확장('17)

- (기업) KT·SK가 스마트 팜 농가 연간 통신비 지원 및 상설 교육장 설치 등

- (SW) 최적 환경조절이 가능한 생육관리 SW 개발, 빅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지향

○ (교육 지원) 실습교육장 및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확충, 농협 지원 강화

- 교육장('15 : 11개소→'16 : 20), 현장지원센터('15 : 8개소→'16 : 10), 농협 자체 지원센터 설립

○ (산업 육성) 한국형 보급모델 개발, 핵심 기자제 표준화, 품질보증제 도입

○ (R&D) 핵심기기 국산화, 최적 SW 개발에 집중투자('16~'21, 1,000억원)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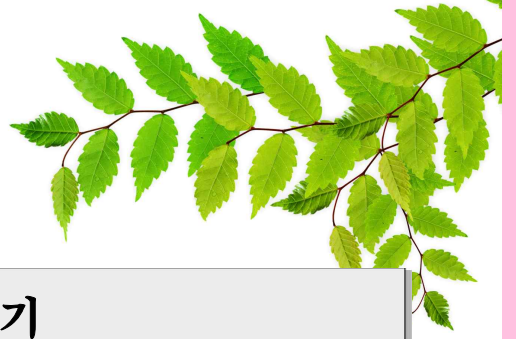
## 8. 해외 농업정보

### ◆ 러시아 소비자, 건강보조식품 관심 증대

- 홍삼 앞세워 소비계층 세분화 통해 틈새시장 진출 필요 -

- 러시아 건강보조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홍삼 등 우리만의 특색을 가진 한약재를 활용해 나이, 성별 등 특정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으로 현지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러시아인들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섭취가 건강관리의 필수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
- 실제로 현지 정부 기관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skaya Gazeta)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 남성 65, 여성은 71%가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홍삼농축액·드링크 등 현지 취향을 고려한 홍삼가공품 개발과 함께 우리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흑마늘 등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의 수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특히 계층, 연령별로 선호하는 제품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제품을 출시한다면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주로 소비하는 남성은 주로 45세 이상의 장년층이며, 이들은 활력 증대 성분이 강화된 제품을 선호한다.
- 반면 젊은 소비자들은 체중조절에 효과적이거나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된 보조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편이다.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취향을 고려해, 품질을 차별화한 홍삼가공제품의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미국서 소포장 및 간편 포장 식품 인기

- 1인 가구 증가 용량 작고 포장 간편한 식품 소비 확대 -

- 우리 농식품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용량을 줄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포장 제품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미국포장기계제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식품 시장이 2022년까지 연평균 2.9%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싱글족 증가 등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포장과 간편성을 겸비한 식품의 성장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 쉽게 포장이 제거되거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특히 한식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높은 점을 감안해, 즉석비빔밥 등 전자레인지 등을 활용해 조리가 쉬운 한식 편의식품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 이와 함께 뚜껑이 쉽게 따지는 음료,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한 원터치캔 등 안전포장용기를 사용한 제품이 각광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용기나 포장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참신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포장이 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경우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의 문구를 포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4. 25.(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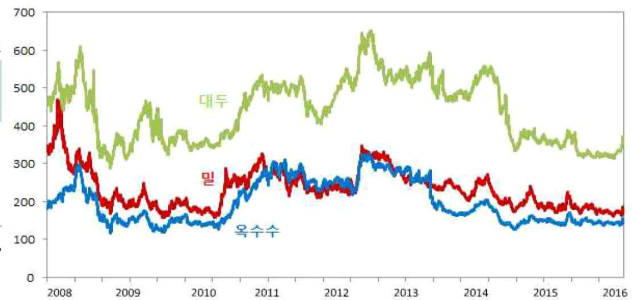
차익실현거래로 곡물 선물가격 연일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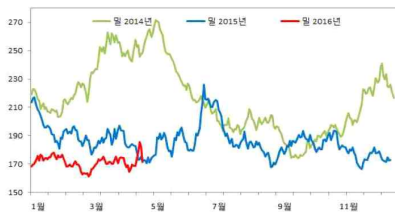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4.22)	전일대비	전월평균 ('16.3)	2015 평균
밀	171.59	▼5.8%	170	186
옥수수	146.29	▼3.3%	143	148
대두	362.65	▼3.1%	327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5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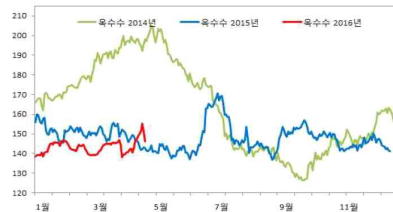


##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도세 유입과 투기적 거래인들의 차익실현거래로 금요일 6% 가까이 하락하였음. 또한 대두와 옥수수 선물가격 하락은 밀 가격에 하방 압력을 더함. 금주 선물시장의 숏커버링 랠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세계 밀 재고량 전망은 여전히 약세 요인으로 남아있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금주 초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남겼으나 금일 투기적 거래인들의 차익실현거래와 미국의 봄 파종 진행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미 농무부에 따르면 옥수수 파종 속도가 예정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파종면적도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임. 미국 생산자들은 많은 양의 구곡 재고량을 판매함으로써 현물과 선물 가격에 하방 압력을 더함.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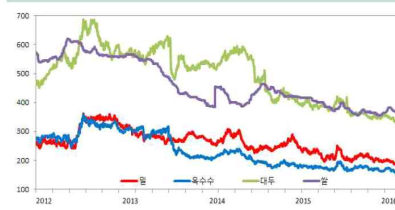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차익실현거래로 하락하였음. 브라질 해알화 강세와 아르헨티나 폭우 피해는 여전히 가격을 지지하였으나 다음 주 아르헨티나의 기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함. 부에노스 아이레스 곡물거래소는 대두 생산 전망치를 6,000만 톤에서 5,600만 톤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농림부는 6,090만 톤에서 5,760만 톤으로 하향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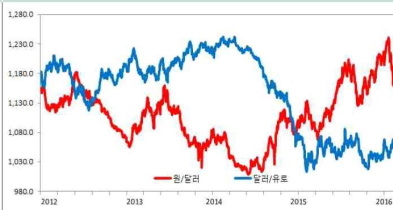
## 관련동향

- 아르헨티나 기상 개선 예보로 대두 수출가격 소폭 상승
-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생산 감소 본격화 전망, 주요 산유국 공조 회의 재개최 가능성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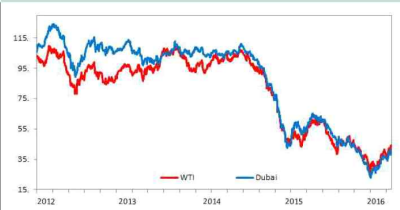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6 ▼1.4%	환율	원/달러	1,134.9 ▲0.2%
	옥수수	173 ▼2.3%		달러/유로	1.1301 —
	대두	393 ▲1.0%	국제유가	WTI	43.73 ▲1.3%
	쌀	383 —		Dubai	41.01 ▼1.7%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6월물), Dubai(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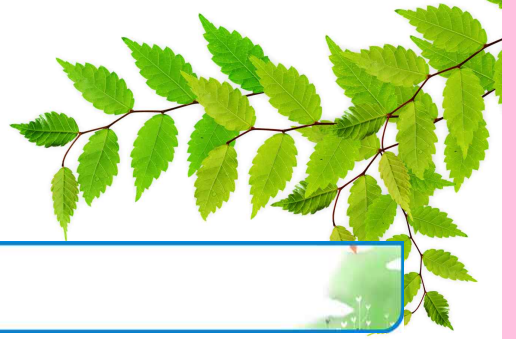
2) 기준일은 '16.4.21(수출가격), '16.4.22(환율), '16.4.22(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sonmy@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농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29일 마감

- 전남도, 쌀직불금 등 신청 기한 놓치지 않도록 막바지 홍보 -
- 전라남도는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농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해에는 6월 15일까지 접수했으나 올해는 농한기를 이용해 농가들이 편리하게 신청토록 접수 기간을 한 달 앞당겨졌다.
- 농업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천 m<sup>2</sup>(300평)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난 3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됐다.
-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 지역의 농지와 초지가 대상이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직불금이 실제 농가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기를 놓쳐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신청 마감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 디자인박람회, 청소년 체험학습장으로

－ 조직위, 광주교총과 현장체험홍보 등 업무협약 －

-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청소년 현장체험학습장 제공관람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협약에 따라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광주지역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유도하는 등 박람회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전국 유·초·중·고·대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적극 홍보한다. 세계친환경 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박람회장에 연출하고, 교원과 학생들의 박람회 관람 및 체험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시가 후원한다.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29일까지 25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에서 열린다.

\* 출처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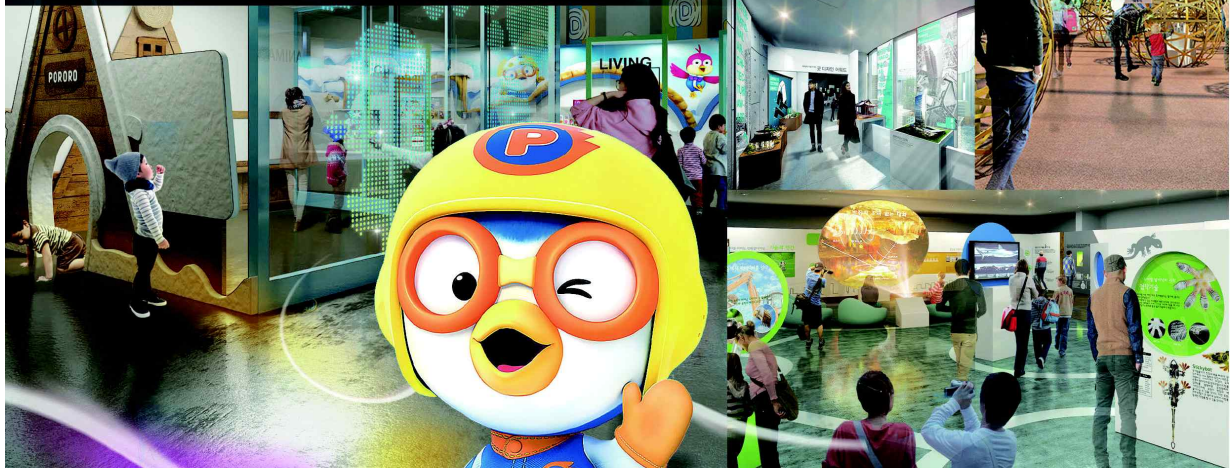
생명향전남  
Pulse Life, Jeonnam

WORLD ECO-FRIENDLY DESIGN EXHIBITION, KOREA

7개의 친환경디자인 주제를 소개할

## 주제전시관

- 뽀로로와 함께하는 친환경이야기
- 친환경디자인이 만드는 미래의 삶
- 천연염색이 연출하는 쪽빛의 신비



오곤 스튜디오  
**뽀로로 Pororo**  
The Little Penguin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

##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WORLD  
ECO-FRIENDLY DESIGN  
EXHIBITION, KOREA

**2016. 5. 5~29**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농업기술원, 빛가람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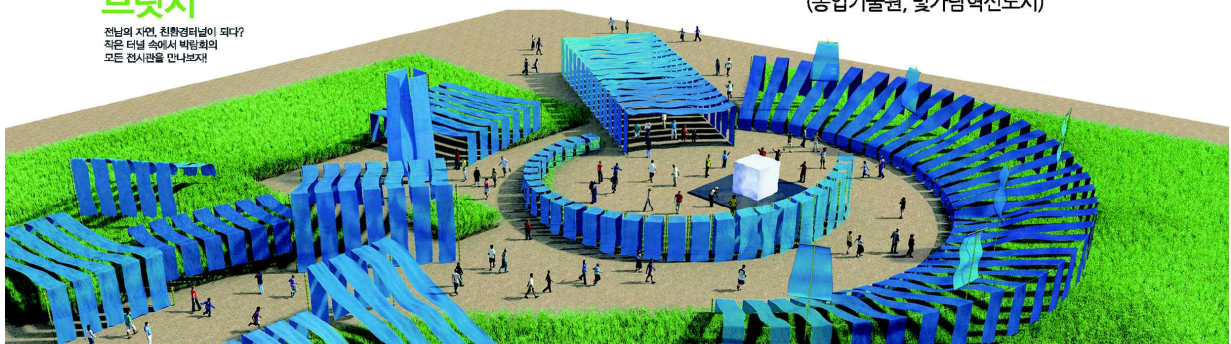
### 빛과 바람의 율령길 브릿지

전남의 자연, 친환경타님이 되다?  
작은 터널 속에서 박람회의  
모든 전시관을 만나보세요!

◆쪽빛 바닷길 호흡하는 큐브

### 도입관

나주의 경관, 천연염색  
세계적 실지 미술기, 천수원 차가와  
세계자연유산(고인)박람회가 만나다!





맛 좋은 쌀 생산을 위한

## 「2016 쌀 적정생산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① 질소 표준시비량(9kg/10a) 준수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합니다.

-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여 밥맛이 떨어집니다.  
-밥알이 쉽게 딱딱해지고 찰기가 없습니다.
-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병해충, 도복 등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 ② 적정 파종량을 준수합니다.(밀식재배 억제)

- 법씨 파종량이 많으면  
-키다리병, 모잘록병 등 병해 발생이 많아지고,  
-모가 연약해지며, 모끼리 경쟁으로 생육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 건강한 모를 길러서 적정주수(65~70주/3.3m<sup>2</sup>)를 지킵시다.

### ③ 다수성 품종보다 밥맛 좋은 품종을 재배합니다.

- 고품질 품종재배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고  
-쌀의 품질을 높이면 우리지역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품종선택 시 유의사항.  
-지역생태, 숙기, 재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추천 품종을 선택합니다.  
※신품종 재배 시 적응지역, 시비량, 병해충 등 재배 특성에 주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선택하고, 특히, 기능성 품종은 유통 및 판매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04-201-1833),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지원단(063-238-1497)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82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